



## 戊午年을 보내면서

丁奎榮

<本會副會長·서울市建設局長>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그 많은 나날 365일이 언제 다 가버렸는지 새삼 세월의 빠름을 느낀다.

이제 우리 韓國上水道協會도 한살을 더 먹은 셈이다. 사람의 活動이 뜻이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모임인 우리 韓國上水道協會의 모임에도 뜻이 있다. 과연 지난 1年 우리協會는 무슨 일을 얼마나 하였으며 또 우리들 스스로도 얼마나 成長하였나? 우리의 上水道技術은 얼마나 發展하였으며 淨水技術의 向上과 經營面에 있어 生産코스트의 節減에 進一步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가? 國際競爭時代에 우리의 技術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돌이켜 보면 그런대로 지난 1977年 11月 27日 泰國 방콕에서 東亞細亞上水道協會 創立總會가 開催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代表 6名이 參加한바 있었고, 지난 1978年 10月 2日부터 5日까지 日本 京都에서 開催된 第12回 國際水道會議 및 定期總會 때도 우리나라에서 大學 18名이 參加하는 등 刮目할만한 成果를 나타낸바 있으며 國際上水道協會에는 韓國上水道協會가 이미 法人會員으로 加入한바 있으며, 個人會員으로도 6名이나 參加하여 每番 刊行物을 받고 있다. 國內에서도 水道座談會와 水道심포지엄 그리고 上水道機器展示會등을 通하여 上水道經營者와 技術人들에게 效率的인 運營과 業務能率向上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上水道發展에 寄與하였다고 自負하는 바이다.

이외에도 上水道技術普及策의 一環으로 建設部의 發刊承認을 얻어 從來의 施設基準을 우리의 實情에 알맞는 上水道施設基準으로 모든 Data와 先進 外國의 最近 上水道施設基準을 導入하여 充實한 內容으로 補強하여 原稿整理를 마쳤으며, 冊字는 1979年 3月中으로 完成, 各

市, 道의 國家機關과 各學校, 研究所 및 試驗所 그리고 實務技術人들에게 申請에 의하여 配布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上水道事情을 살펴보면 1977年末 現在 給水地區는 192個所, 給水普及率 53%, 1日 1人當給水量은 242ℓ, 施設容量은 4,986,000 $m^3$ 으로 低調한 實情이기는 하나 3年後인 1981年에는 給水地區 210個所, 給水普及率 65%, 1日 1人當給水量 252ℓ, 施設容量은 7,900,000 $m^3$ 으로 擴大할 計劃으로 되어 있으며 大都市인 서울市の 3年間の 伸張을 살펴 본다면 先進國水準에 比하여볼때 그야말로 앞서가거나 若干 뒤져있는 實情이어서 遜色이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1977년부터 1979년까지의 實績과 展望은 1977年末 現在 給水普及率 90.5%, 1日 1人當給水量 320ℓ, 施設容量 2,170,000 $m^3$ 이고 1978年末에는 給水普及率 91.7%, 1日 1人當給水量 335ℓ, 施設容量은 2,410,000 $m^3$ 으로 擴大되었으며 1979年末에는 給水普及率 92.4%, 1日 1人當給水量 425ℓ, 施設容量은 3,070,000 $m^3$ 으로 되는 尙大한 計劃이다. 서울시는 위와같이 엄청난 伸張을 보이니 其外 地方都市는 果然 充足시키고도 남아도는 程度로 될 것인가?

돌이켜 보건대 上水道의 普及擴大를 위한 우리들의 努力은 어떠한 것인가? 協會誌는 上水道技術發展을 위하여 얼마나 寄與하였을가, 國際交流를 通한 技術의 發展을 위해 좀더 效果的인 活動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인가?

時間은 우리의 아쉬움과는 아랑곳 하지 않고 새해의 문턱을 넘겨다 본다.

未來에 벽차고 過去에 아쉬움을 갖는 것이人之常情이라고는 하지만 다시 한 해를 매듭짓는 戊午年의 마루턱에서 뒤돌아 본다. <끝>